

장성군 일상회복지원금에 상권 활기

전 군민에 30만원씩 지급 황룡시장 등 인파로 북적

장성군이 모든 군민에게 지급하는 일상회복지원금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장성군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 겪는 군민을 위해 일상회복지원금 30만원을 장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번 일상회복지원금은 민선8기 김한중 장성군수의 공약사업이다.

장성군은 지난 8일부터 이틀 간 공무원 90명을 투입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첫날인 8일에만 1만5300여명에게 지급을 완료해 35%의 지급률을 보였다.

지원금은 전액 장성사랑상품권으로 배부해 지역 경제 회생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지급 2일차인 9일, 장날을 맞이한 장성 황룡시장은 골목마다 손님들이 북적이는 등 마치 활기를 띄웠다.

황룡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금을 받은 김군수도 황룡시장을 찾아 장을 보며 민생을 살피고 주민 애로를 청취했다.

일상회복지원금은 내달 16일까지 읍·면 행정복



김한중 장성군수가 9일 황룡면 전통시장에서 채소를 구입하고 있다.

<장성군 제공>

지센터에서 지급한다.

세대주가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가구원 1인당 30만원의 장성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와 장애인 가구는 직접 방문해 지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민선8기 장성군은 군민이 주인이 되는 시대, 군민이 행복한 장성시대를 여는 것이 핵심 목표"라며 "코로나19 장기화와 경제 위기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군민의 삶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고인돌 고장 화순에서 이봉주와 함께 뛰어요



군, 13일 맹환금배 광복절 기념 마라톤 개최

화순에서 이봉주와 함께하는 마라톤대회가 열려 눈길을 끈다.

화순군은 오는 13일 화순공설운동장에서 '2022 맹환금배 광복절 기념 마라톤 대회'가 열린다고 밝혔다.

화순에서 개인의 이름을 건 마라톤 대회가 열리는 건 처음이다. 대회의 주최자인 맹환금 전남 육상연맹 부회장은 "오랜 꿈을 이루게 됐다"며 소감을 밝혔다.

평소 친분이 있던 이봉주 선수도 함께 해 대회 규모도 커졌다. 화순공설운동장에서 능주로 이어지는 메타세콰이어 길을 걷고 달리는 3km 가족 걷기, 5km, 10km 3개 코스로 진행된다.

남녀 혼성 5인이 10km 달리는 단체 대항전도 준비해 신선한 재미도 준다.

규모와 재미만큼 시상도 푸짐하다. 5km 남녀 1~3위에게는 트로피와 함께 10·7·5만원의 상금이, 10km 남녀 1~3위에게는 트로피와 함께 20·15·1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맹환금 전남육상연맹 부회장은 "화순의 아름다운 여름 풍광을 알리고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사비를 털어 대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작은 힘이나마 고향 화순의 육상 발전에 힘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화순군 관계자는 "개인의 이름을 건 마라톤 대회가 열리게 돼 화순군민으로서, 생활스포츠 동호인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스포츠 메카를 꿈꾸는 화순군에 다양한 스포츠 활동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

나주 산포면 도시개발 사업 '첫 발'

신도리 일대 공동주택·공원 등...마을 추진위, 민간 사업자와 협약

나주혁신도시 내 한전공대와 인접한 산포면 신도리 일대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된다.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나주시 산포면 신도리 도시개발 사업 추진위원회는 10일 민간사업자인 ㈜에스원글로벌과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협약을 했다.

나주 신도리 도시개발사업은 산포면 신도리 일원 약 45만㎡에 총사업비 1조5000억원을 투입, 공동주택·도시공원시설·복지시설 등을 조성한다.

신도리 도시개발 사업지는 올해 개교한 한국에너지공대와 인접해 있으며 사업지 인근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들이 추진되거나 검토 중이다. 그동안 민간사업자를 찾지 못해 도시개발이 지

지부진했으나 이번 협약으로 사업 추진에 첫걸음을 내디뎠다.

앞으로 지역 거주민 토지 보상 협의와 지자체 승인 절차 등을 거쳐 사업추진이 본격화된다.

업무협약을 주도한 김재권 추진위원장은 "지역주민의 오랜 염원인 주거환경의 개선은 물론 유휴지 공원과 사업 등으로 나주혁신도시의 친환경 주거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민간사업자인 심현태 ㈜에스원글로벌 대표는 "국내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선두주자인 포스코건설 등과 힘을 모아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도시개발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n@kwangju.co.kr

함평 '상해임시정부 청사' 역사여행 명소 주목

김구 집무실·윤봉길 침실 등 재현 일강 김철 선생 기념관도 마련

광복 77주년을 맞아 함평 상해임시정부 청사 역사관과 일강 김철 선생 기념관이 역사여행 명소로 주목을 받고 있다.

상해임시정부 청사 역사관은 임시정부가 상해에서 네 번째로 마련했던 청사이자 가장 오랜 기간 사용했던 건물로 그대로 재현한 공간이다. 국내 최초로 임시정부 청사를 재현한 곳으로서 의미가 남다르며, 2009년 함평군 신광면 함정리에 개관했다.

연면적 876㎡,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됐으며 입구에는 김구 선생 동상, 앞마당에는 안중근 장군 기념 동상이 세워져 있다.

총 3개 전시실로 구성했으며, 건물 내부에는 김구 선생 집무실, 정부 집무실, 회의실, 화장실, 이봉창·윤봉길 등 독립운동가들이 임시숙소로 사용했던 침실이 100년 전 모습 그대로 재현되어 있다.

상해임시정부 청사 옆에 위치한 독립운동사관에는 일제가 자행했던 잔혹한 고문 사진, 태극기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는 독립투사들의 사진, 함평 문장 4·8 독립 만세운동에 대한 자료 등이 전시돼 있으며 각 전시실에서는 관람객이 직접 독립 운동가를 찾아 임무도장을 받는 독립운동가 역사체험을 할 수 있다.

상해임시정부 청사 역사관 인근에는 일강 김철



함평 상해임시정부 청사 역사관을 찾은 관람객들이 전시관을 둘러보고 있다.

<함평군 제공>

선생 기념관도 자리해 있다.

2003년 건립한 이 기념관에서는 호남지역 대표 독립운동가인 일강 김철 선생의 일대기를 살펴볼 수 있다.

일강 김철 선생은 1886년 신광면 함정리 구봉마을에서 태어나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하고 백범 김구 선생과 함께 이봉창·윤봉길 의사의 의거를 주도했다. 이후에도 김구·안창호 등과 함께 시사책진회, 한국독립당 등 독립운동 단체를 조직해 활발한 독립운동을 펼쳤으나 1934년 격무로 인한 폐렴으로 중국 항저우에서 48세에 타계했다.

기념관에는 선생의 생애를 그린 삽화, 영정사진과 어록, 1918년 신한청년당 결성 당시의 사진자료, 임시정부 초기 활동사진과 유물 등이 전시돼 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함평군 신광면 상해임시정부 청사 역사관과 일강 김철 선생 기념관을 방문하면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다"며 "이곳이 전남을 대표하는 역사교육의 산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담양에 거미박물관 들어선다

김주필 동국대 석좌교수, 주필거미박물관 자료 기증키로

담양군은 주필거미박물관과 '거미박물관'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내 '1호 거미박사' 김주필(사진 오른쪽) 동국대학교 석좌교수가 평생 조사하고 연구한 자료가 집약된 주필거미박물관의 자료의 기증을 약속하며 성사됐다.

협약에 따라 담양주 주필거미박물관은 소장하고 있는 약 40만여 점의 거미 표본과 각종 생물박제, 화석광물, 중유석 등을 모두 기증하고 담양군은 거미박물관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